붓으로 벼려낸 108용…희망 담아내다

도일 스님 1월 24일~2월 6일, 한국미술관서 특별전

갑진년 출생 스님이 전하는
2024년 희망의 메시지 담아
일필휘지로 새로운 용 표현해
2018년 이후 6번째 개인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20호 크기 한지에 용을 그린 도일 스님.


도일 스님의 작품.

갑진년에 태어난 스님이 갑진년을 맞아 붓으로 청룡 108마리를 벼려냈다. 한 폭의 그림 같으면서도 한자 용(龍)을 달리 써내려간 듯한 일필휘지의 경지가 한지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이 새로 선보이는 '용의 세계'다.

전통서화의 대가인 여초 김응현, 우봉 한상갑, 청계 양태석 선생을 사사하며 서화를 익혀온 도일 스님. 1993년 해인사에서 군부대 건립 기금 마련 전시회를 시작으로, 1994년 경인미술관 '산중서화전', 2006년 조선일보사 '선묵서화전', 2007년 우림화랑 초대전, 2018년 라메르갤러리 '선서화도예전'을 개최한 스님이 여섯 번째 개인전으로 대중을 찾아간다. 도일 스님이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전관)에서 개최하는 '청룡의 해 108용 특별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난 도일 스님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며 2~3년간 준비해온 대작불사다. 108마리의 용 가운데 단연 으뜸인 것은 120호(205㎝×140㎝) 크기 한지에 한 획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마치 여의주를 토해내는 듯한 뿔 달린 용의 머리와 그 뒤로 길게 뻗어나가며 똬리를 튼 몸통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써낸 서로 다른 108마리의 용은 스님에겐 108염주를 한 알씩 돌리며 참회하고 번뇌를 씻어내는 수행과도 같았다.

도일 스님은 1월 8일 기자들과 만나 "108용을 주제로 앞서 전시를 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어떻게 글씨를 써야할지 밤낮으로 고민하다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왔다"며 "도인이 피나는 노력 끝에 깨치면 눈물이 난다는 얘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됐다"고 준비과정을 술회했다.

스님이 전시 주제를 108용으로 정한 것은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다. 갑진년에 태어난 스님에겐 환갑을 맞는 의미기도 하지만 스님은 이보다 60년 전 청룡의 시절과 비교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에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도일 스님은 "1964년은 배고프고 힘든 청룡의 시절이었다. 초가집 밖으로 나가야 화장실이 있던 시절"이라며 "농경시대에서 산업화를 거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표현까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시대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인물이 많이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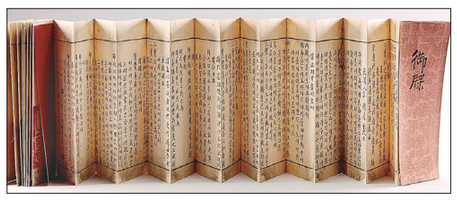
전시는 120호 크기 작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용 108마리가 중심을 이룬다. 용을 표현한 글씨뿐만 아니라 바탕이 되는 한지의 색깔도 제각각. 또한 파란색 염료로 표현한 작품과 용에 반야심경을 금니로 사경한 작품도 전시된다. 금니 사경은 정진택 명인이 맡았다. 여기에 더해 달항아리와 은 다관, 옻칠목 항아리, 전통 한지등(燈)도 만나볼 수 있다.

도일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와 지역 자비나눔에 후원하기로 했다. 도일 스님은 "양주 석굴암이 양주 회천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찰로서 20여 년간 자비행을 펼쳐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제대로 나눔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곳곳에 자비행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서 상서로운 기운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수익금 전액을 자비나눔으로 회향하겠다고 결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대산에 피어난 절, 월정사를 만나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개최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전시실
동계청소년올림픽 기념으로 열려


국보 '상원사 중창 권선문' 언해본. 세조와 정희왕후, 세자, 전 · 현직 고위관료 등 2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조선 초기 한글 연구의 중요 자료다.

다섯 봉우리로 둘러싸인 오대산은 봉우리마다 불교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부처의 사리를 산에 봉안했다고 전하는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창건한 오대산의 중심 월정사, 조선 세조(世祖)와 문수동자의 만남을 간직한 상원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다섯 봉우리에서 머무는 5만여 부처와 보살을 모시는 암자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기억을 품고 있다. 오대산이 품어낸 절, 월정사의 불교문화유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국립춘천박물관과 공동으로 3월 31일까지 특별전 '오대산 월정사: 절, 산 속에 피어난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가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기념해 진행된다. 전시에는 국보 1건, 보물 7건, 국가민속문화유산 1건,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15건 등 오대산의 신앙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 60건 140점이 선보여진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오대산 신앙의 시작'에서 오대산의 불교 신앙의 시작인 자장율사와 사리에 대해 다뤘다. 특히 오대산의 사리 신앙을 대표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고려시대 찬란하게 빛난 오대산의 불교문화를 보여준다.

2부 '부처와 보살, 산에 머물다'는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로 여겨진 오대산, 그리고 오대산의 사찰과 암자를 후원한 조선 왕실의 신앙의 일면이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 전시된다. 세조가 상원사를 방문하여 병을 치유한 설화와 관련하여, 상원사를 중창하자는 내용이 담긴 '상원사 중창권선문'에서는 세조의 수결과 도장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에서 상원사에 경제적 혜택을 준 '상원사 입안'을 볼 수 있다.

3부 '산 너머, 함께 만든 이야기'는 불교문화뿐 아니라 조선의 기록문화를 담고 있는 오대산과 산사의 사람들이 산 너머의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강원도와 평창군을 방문한 분들에게 강원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면면을 알리고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기운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성파 대종사 한국화 제자들 전시 순례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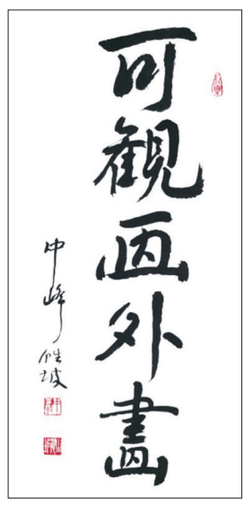
범어사 성보박물관 '제8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옻칠 한국화 제자들이 전시 순례에 나선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제8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을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전시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내린 휘호 작품 '가관화외화(可觀画外畵, 그림 밖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림이 보인다)'와 허진석 작가의 〈영축산 황룡〉, 강필순 작가의 〈春(COVID-19 Endemic)〉, 옥태석 작가의 〈어변성룡도〉 등 36명의 작가가 참여한 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통도사 서운암 '옻밭아카데미'는 성파 대종사의 옻칠 한국화 제자로 구성돼 한지·감지·전통천연염색·옻 염색·도자기·서예·옻칠화 등 다양한 전통예술 분야에서 연구와 작업을 하고 있다. 성파 대종사는 이번 전시를 위해 '가관화외화'를 휘호로 내렸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휘호 '가관화외화(可觀画外畵)'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성파 종정 예하께서 내리신 '그림 밖을 보아야 비로소 그림이 보인다'는 휘호 법어는 예술을 초월해 자신의 틀을 깨고 경계를 허물어 수행의 단계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어른의 당부"라며 "통도사를 시작으로 범어사, 대구까지 이어질 회원들의 순례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전시가 성만해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祝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全7권 完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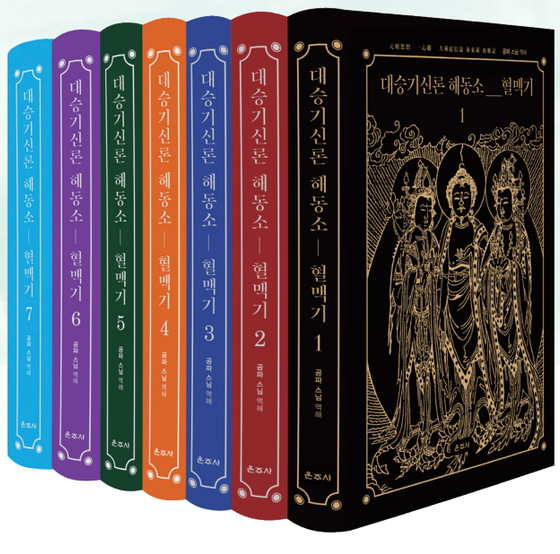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기신론의 완결판!!!

기신론 해동소 별기를
현대식 어휘로
완벽하게 풀이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중흥에는
이 혈맥기 혁명밖에
없다.


원효센터 공파스님 역해/신국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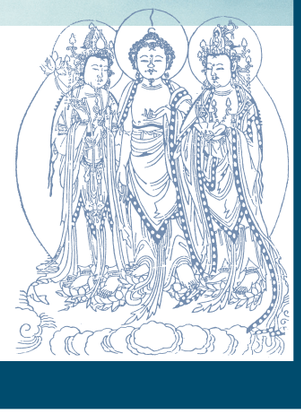
만만한 게 기신론이다. 기신론 안 가르친 스님이 없고 기신론 안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명보살의 혈통과 원효성사의 맥박을
펄펄 뛰게 살려놓은

이 혈맥기를 모르고 불교를 말하면 반풍수고
이 혈맥기를 벗어난 수행은 사이비다.

그만큼 이 혈맥기는 대승불교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독보적 필독서다.



• 1권 392쪽, 20,000원 • 2권 424쪽, 20,000원 • 3권 384쪽, 20,000원 • 4권 428쪽, 20,000원 • 5권 468쪽, 23,000원 • 6권 492쪽, 25,000원 • 7권 588쪽,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